

France

## 프랑스 문단에서 주목받는 중국계 작가 프랑수아 첩과 다이 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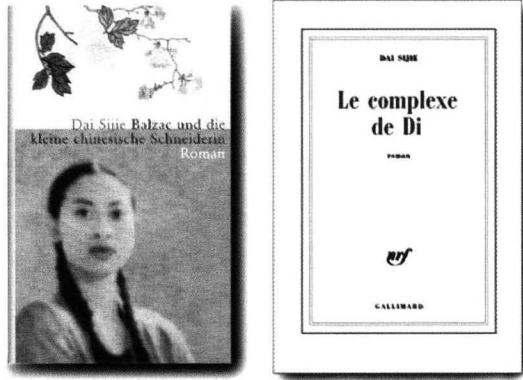
박해현\_조선일보 파리 특파원



프랑스 문단에서 중국계 작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대륙이나 대만의 작품이 대거 소개되는 번역문학의 차원이 아니다.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프랑스어로 직접 창작을 하는 중국계 작가들의 활동이 최근 몇 년 사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로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정회원으로 선출된 프랑수아 첩을 꼽을 수 있다. 국내에도 그의 첫 소설 《티아닌 이야기》가 번역됐다.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첩은 프랑스 지식인 사회에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학자였다. 첩은 1960년대 후반 이후 파리의 지식인들에게 중국문화를 이해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첩에게 주역에 대해 묻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첩은 중국 고전시학을 기호학적 분석의 틀을 이용해 풀이했고, 중국고전 미술화보집에 시적인 해설을 써서 적지 않은 고정독자를 확보했다. 그는 말년에 본격적인 소설가로 나서면서 독자들의 큰 호응을 누리고 있다.

프랑수아 첩이 학술적 차원에서 입지를 굳힌 뒤 창작으로 나갔다면, 요즘 등장하는 중국계 신세대 작가들은 프랑스의 젊은 토박이 작가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소설적 서사의 재미를 복원시키면서 처음부터 문학적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영화감독으로도 활동중인 소설가 다이 시지가 명문 출판사 갈리마르의 새로운 간판작가로 떠올랐고, 여성작가인 산 시는 지난해 고교생이 뽑은 공쿠르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뿌리를 내렸다. 다이 시지가 최근 발표한 소설 《디의 콤플렉스 Le complexe de Di》는 올해 하반기 문단의 화제작으로 떠올라 공쿠르 문학상 등 주요 문학상 후보에 올랐다. 다이 시지는 이미 지난 2000년 첫 소설 《발자크와 중국인 소녀 재단사》를 펴내 호평을 받았고, 현재까지 25만 부 이상 팔리는 대성공을 거뒀다. 원래 프랑스에 와서 영화를 전공하고, 감독으로 출발했던 다이 시지는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 개봉하기도 했다.

중국의 프리안 지방에서 1954년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다이 시지는 중국을 혼돈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던 문화혁명의 마지막 횡포를 경험한 세대에 속한다. 그는 1971년~1974년 재교육이란 명목으로 산악지방으로 보내져 거기서 고교교육을 마쳐야 했다. 그는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한 뒤 대학에 들어가 미술사를 전공했



▶ Le Complexe de Di  
 ▶▶ Balzac und die kleine chinesische Schneiderin

고, 프랑스 정부가 뽑는 국비 장학생 시험을 치열한 경쟁 끝에 통과해 1984년 프랑스 땅을 밟으면서 새로운 인생행로를 걷기 시작했다. 그는 프랑스에 정착하면서 <중국, 나의 고통>, <달을 먹는 사람> 등의 장편영화를 연출했다가 마침내 소설에 손을 대 뜻밖의 성공을 거뒀다. 첫 소설 《발자크와 중국인 소녀 재단사》는 문화혁명기에 겪은 하방下放의 기억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서양문화 예술과 관련한 물품이면 무조건 폐기되어야 할 부르주아 문화의 유산으로 치부됐던 당시에 하방을 당한 소년들이 밤이면 은밀하게 발자크를 비롯한 서양소설들을 읽으면서 또 다른 세계를 꿈꾼다는 스토리가 소설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재교육을 받기 위해 도시에서 티베트 부근의 벽지로 하방당한 두 소년이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겪는 시련의 계기는 바이올린이었다. 바이올린을 처음 본 마을의 지도자가 그것을 태워버려야 할 부르주아적 물품이라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소년이 바이올린을 연주한 뒤, 곡명을 '모택동을 생각하는 모차르트' 라고 붙이자 마을의 지도자는 흔쾌히 바이올린을 통과시켰다는 식의 삽화들이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의 풍경을 회화적으로 그린다.

다이 시지가 올해 내놓은 두 번째 소설 《디의 콤플렉스》는 중국 현대사회에 대한 풍자정신을 더 증폭시켜서 보여준다. 프랑스에서 프로이드와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공부한 뒤 귀국한 주인공 무오는 중국에서 정신분석학의 시조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서 전국을 돌아다닌다. 그의 나이 40에 이르러 불혹이라고는 하지만, 그의 행보는 좌충우돌이다. 이 소설은 그를 오늘날 중국사회의 돈키호테처럼 묘사한다. 그런데 무오에게는 남다른 비밀이 있다. 그의 목표는 정치적 이유로 수감된 약혼녀를 구해내는 것이다. 그는 담당판사인 디를 만나 뇌물을 주려고 하지만, 판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숫처녀' 였다. 무오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협에서 구해내려는 기사 돈키호테처럼 숫처녀를 찾는 모험 길에 나선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의 여정은 좌충우돌로 이어진다. 그러다가 그는 시장에서 해몽가로 나선다. 정신분석학을 이용한 꿈의 해석이라고 그는 주장하지만, 중국인들은 그의 엉뚱한 꿈 풀이를 심심풀이 삼아 웃고 즐길 뿐이다. 결국 이 소설은 서양식 정신분석학에서 사용하는 상징 풀이가 중국식 해몽과는 어떻게 어긋나면서, 그 둘의 만남이 어떤 웃음을 낳는가를 그려낸다. 동시에 이 소설은 18세기 서양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활동한 이후에 남긴 기독교의 흔적, 20세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모택동의 개인숭배 등이 오늘날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남아 있고, 어떻게 변형됐거나, 어떻게 무의식 속에서 살아 숨쉬는지를 흥미롭게 묘사한다.

이 소설은 프랑스에서 체류하는 중국인 작가가 오늘의 프랑스 독자를 철저하게 염두에 두고 중국사회를 묘사했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프랑스 사회에서 워낙 정신분석학의 영향력이 강하다보니, 정신분석학의 엉뚱한 모험을 그린 이 소설이 금세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이 시지는 프랑스에서 거둔 성공으로 인해 이미 그의 첫 소설이 25개 언어로 번역됐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저명한 작가가 됐다. 다만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그의 소설이 번역되지 않았다고 한다. ❷